

방탄소년단 팝업·사진전 방문자수 “CES의 2.5배”



▲ 팝업스토어 현장 모습. 사진=하이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콘서트를 열면서 마련한 사진전과 팝업 스토어에 11만 명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1일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에 따르면, 지난 5~17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된 공연 '더 시티(THE CITY)'의 일환으로 연 체형형 팝업스토어 'BTS 팝업: 퍼미션 투 댄스 인 라스베이거스' 현장에 방문객 7만 명이 찾았다. 사진전 '비하인드 더 스테이지: 퍼미션 투 댄스(BEHIND THE STAG: PERMISSION TO

DANCE)'에는 약 4만 4,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팝업스토어와 사진전 두 프로그램의 방문객 합은 11만 4,000여 명으로 올해 이 도시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인 CES(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전체 방문객 4만 5,000명 대비 약 2.5배 이상의 방문객 수를 기록했다.

방탄소년단의 히트곡 '다이내마이트(Dynamite)'와 '버터(Butter)'에 맞춰 펼쳐진 벨라지오 분수쇼에는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 추산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이와 함께 방탄소년단이 즐기는 한식 메뉴를 코스화해 판매한 1만 명 이상이 찾았다. MGM 리조트 앤 인터내셔널 산하 11개 호텔에서 진행된 'BTS 테마룸'은 약 3,500개 객실이 예약, 운영됐다.

더 시티(THE CITY) 개최 기간 동안 라스베이거스 관광청이 공식 트위터 계정명을 '보라하이거스(BORAHAEAGAS)'로 변경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LASVEGAS #BORAHAEAGAS, #THECITY 등 관련 키워드들이 트위터의 실시간 글로벌 트렌드 상위 10위에 올랐다.

투애니원, 7년 만에 깜짝 재결합



▲ 걸그룹 투애니원 사진=코첼라 유튜브 캡처

걸그룹 투애니원이 지난 16일 캘리포니아 코첼라 밸리에서 열린 유명 음악 페스티벌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 (Coachella Valley Music and Arts Festival)에서 7년 만에 완전체로 깜짝 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투애니원 멤버 4명은 무대에 올라 히트곡 '내가 제일 잘 나가'를 열창했다. 투애니원이 팀 무대를 꾸민 것은 2015년 '엠넷 아시아 뮤직 어워즈' (MAMA) 이후 7년 만이다.

2009년 데뷔한 투애니원은 '파이어' (Fire), '아이 돈트 케어' (I Don't Care), '어글리' (UGLY) 등의 노래로 큰 사랑을 받았다. 이들은 2016년 11월 해체를 발표했고, 이듬해 1월 마지막 노래 '굿바이' (GOOD BYE)를 내놨다.

이날 무대는 리더 씨엘이 코첼라 페스티벌에 초청받은 것을 계기로 성사됐다. 가요계 관계자는 "멤버들은 평소 완전체 무대에 대한 의지가 강해 적당한 계기를 논의해왔다."며 "이번 무대는 씨엘이 직접 기획했다."고 전했다.

안녕바다·잔나비 7월 링컨센터 공연

K팝 그룹에 이어 K-인디 밴드들도 미국에 잇따라 진출한다.

21일 코스믹뮤직랩과 페포니뮤직에 따르면 밴드 '안녕바다'와 그룹사운드 '잔나비'가 오는 7월 27일 한국문화원과 뉴욕 대표 문화예술 공연장 링컨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K인디 뮤직 나이트'에 출연한다. 작년에 '포크록대부' 한대수가 링컨센터에서 공연을 한 적은 있지만, 뉴욕에 상주하는 솔로뮤지션이라 안녕바다와 잔나비가 링컨센터 한국밴드 첫 공연의 주인공들이 됐다.

링컨센터 댐포시 파크에서 펼쳐질 이번 'K인디 뮤직 나이트'는 링컨센터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한국 인디음악 초청 공연이다. 링컨센터 주최행사인 '서머 포 더 시티(Summer for the City)'의 공식 프로그램 중 하나다.



▲ 밴드 안녕바다. 사진=코스믹뮤직랩

'클래식음악 성지'로 불리는 링컨센터에 그간 공연한 한국 음악은 클래식과 재즈 그리고 국악 등에 집중돼왔다. 2019년부터 K팝이 조금씩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해 링컨센터가 'K 팩터: K팝에 대한 음악적 탐색'을 열면서 엑소, 레드벨벳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인먼트를 초대했다.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 대중음악 연대

기를 클래식으로 재해석했는데, SM이 세트리스트 선정과 편곡 등 프로그램 구성에 함께했다.

한편 안녕바다는 링컨센터 공연 이외에도 미국 진출을 꾀한다. 미국 영화사 블록폰드 프로덕션(Block-Pond Productions)의 투자와 서던리 픽처스(Suddenly Pictures) 제작으로 '아이 크로스 더 시 워드 유(I cross the sea with You)' (가제)라는 제목의 로드트립 다큐멘터리 영화 촬영도 준비 중이다.

숫자퍼즐 정답

5	6	8	4	7	9	1	2	3
7	9	2	3	5	1	4	8	6
1	3	4	6	2	8	9	7	5
3	7	6	8	9	2	5	1	4
8	4	1	5	3	7	6	9	2
9	2	5	1	6	4	8	3	7
6	5	9	7	8	3	2	4	1
2	1	3	9	4	6	7	5	8
4	8	7	2	1	5	3	6	9

타운뉴스 업소록

“리스팅 신청하세요!”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주소명(한국): _____ 주소: _____

영문: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종: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Tel 562.404.0027 Fax 562.404.0039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info@townnewsusa.com

